

탄소법 제정 의미와 기대효과

도, 메가 탄소밸리 등 핵심사업 탄력

산자부 탄소소재 융복합기술 발전계획 수립·추진 등 육성 가속화될 듯

탄소법이 국회 본회의를 최종 통과하면서 전북 중심의 탄소산업이 정부 지원 육성으로 추동력을 확보했다. 탄소법 제정의 의미와 기대효과 등을 살펴본다.

▲국가 주도로 발전 탄력

탄소법 제정으로 그동안 전북 주도 위주로 힘겹게 추진돼왔던 탄소산업이 국가 차원에서 이끌어 나갈 수 있는 제도적 근간이 마련됐다고 볼 수 있다.

우선 탄소법이 제정되면 산업통상자원부(이하 산업부) 장관은 탄소소재 융복합기술 발전계획을 수립

하고 추진해야 한다. 또 민간부문의 탄소소재 융복합기술 개발을 본격적으로 지원하는 시책들이 추진돼 탄소산업 연구개발은 물론 정부차원의 탄소산업 시책들이 본격 추진되는 등 탄소산업 육성 속도가 가속화될 전망이다.

이는 탄소산업 육성 추진동력이 마련되고 민간의 탄소산업에 대한 투자 의욕이 제고되어 탄소산업 선진국과의 경쟁을 할 수 있는 든든한 토대가 마련됐다는 큰 의미를 갖는다.

▲도 핵심사업 추진동력 확보

산업통상자원부는 탄소소재 융·

복합기술 개발을 촉진하기 위하여 '탄소소재 융·복합기술종합발전계획'을 수립하도록 되어 있어, 정부에서 탄소산업의 발전계획 및 전략 등 그림들을 그려나가게 된다.

또한, 정부는 민간부문의 탄소소재 융·복합기술 개발을 활성화하고 개발 투자의 확대를 유도하기 위하여 지원시책을 마련하고 경비를 지원하는 규정이 포함됨에 따라, 향후 민간에서의 R&D와 투자를 본격적으로 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됐다.

이러한 규정은 전북도가 추진하고 있는 대형 예타 사업인 '메가 탄소밸리 조성사업' 타당성 통과와 우

주항공 분야 주도권을 가져오기 위해 개발하고 있는 '초고강도 탄소섬유 개발사업' 등 핵심사업의 추진동력이 확보됐다고 볼 수 있다.

이외에도 탄소소재 융합기술연구협의회 구성운영, 탄소소재 융복합기술전문연구소 설립, 전문인력 양성, 국제협력 추진 등 도의 탄소산업 육성을 위해 꼭 필요한 핵심사항이 포함돼 있어 눈길을 끈다.

송 지사는 "정치권을 비롯한 200만 전북도민의 탄소산업에 대한 열망과 기대가 만들어 낸 성과"라며 "탄소산업을 전북 뿐만 아니라 대한민국 미래 100년 먹거리로 키워 나가겠다"고 말했다. /고민형 기자

“웹툰 창작 체험관 도민들 손쉽게 이용을”

도의회 문건위, 도 문제국·건설국 추경 심사

전북도의회 문화건설안전위원회 도 문제국, 건설국 소관 제1회 추경예산안 심사를 진행했다.

박재완 의원(완주2)은 도립미술관 소장품 구입시 현재 언론에서 제기되고 있는 대작 작품 등의 논란이 생기지 않도록 꼼꼼하게 검토하여 추진하기 바란다고 주문했다.

박재만 의원(군산1)은 웹툰 창작체험관 운영 사업처럼 스토리를 만들어 웹툰을 통해 대안의 후예와 같은 작품이 창작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고 관심 있는 도민들이 체험과 제작 등을 손쉽게 할 수 있는 방안 마련을 촉구했다.

백경태 의원(무주)은 관광기념품 100선 중 15년 선정된 기념품의 가격이 너무 고가이므로 구입의 어려움이 많으므로 증거가 기념품으로 선정이 필요하고 중앙기적적인 발전 전략을 수립하여 제품 상품권, 특허권 등 지원할 수 있는 방안 및 창조경제 혁신센터와 연계한 지원 방안도 함께 검토해달라고 요청했다.

최영일 의원(순창)은 획일적인 시군 추진 체육대회 예산지원에서 벗어나 스포츠마케팅 중점 추진 시군에 대해서는 확대 지원하는 방안을 강구하고 전라감영 재창조 복원 사업과 같은 꼭 필요하고 중요한 예산은 추경이 아닌 본예산에 편성할 수 있도록 노력해달라고 주문했다.

최은희 의원(비례)은 세계태권도선수권대회가 유치되고 나서 제대로 된 행사 추진을 위한 홍보를 위해 필요한 홈페이지가 아직도 구축되고 있지 않은 것은 큰 문제라고 지적했다.

또한 최 의원은 향토음식체험관광사업은 지난해 음식 팝우어사업으로 이름만 바뀐 사업이다. 결과물이 제대로 나오지 않는 상태에서 음식문화관광진흥원에 지속적으로 예산을 지원하는 것은 문제라고 비난했다.

최 의원은 전북 SIT 브랜드상품 마케팅 예산 및 관광마케팅 종합지원센터 운영 예산의 산출근거 상세자료 제출과 과다 운영 여부를 면밀히 검토해달라고 요청했다. /신광명 기자

도, 유도선 전북사고 대비 훈련

19일 전북도는 유도선 전북사고 대비 훈련을 익산시 용포면 꿈나루터 선착장에서 펼쳤다.

이번 훈련은 다수의 승무원이 탑승한 유람선과 수상레저보트가 충돌해 침몰할 경우의 가상 상황을 설정해 실시한 것으로 재해대책본부와 29개 기관을 비롯, 500여명이 참석했다.

이날 훈련은 1단계로 사고발생 메시지 부여를 시작으로 2단계로 승무원 인명대피, 초기 화재진압 훈련 및 인근 선박을 이용 인명구조 훈련을, 3단계로는 현장지휘대 출동, 긴급구조 통제단 및 통합지원본부 기동하여 소방헬기 및 고속보트를 이용하여 신속한 인명구조 훈련을 펼쳤다.

/정영수 기자



발명의 날 기념식 19일 서울 강남구 코엑스 오디토리움에서 열린 제51회 발명의 날 기념식에서 주요 수상자들이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전북대병원서 ‘고관절 관절 보존술 최신지견’ 열려

고관절 관절 분야의 국내의 최고 석학들이 19일 전북대학교병원에서 고관절 관절 보존술에 대한 최신지견을 집중 논의했다.

전북대병원 정형외과학교실과 의생명연구원, 전북대 임상의학연구소가 공동 개최한 이번 '고관절 관절 보존술 최신지견'은 인공관절 치환술과 관절 치료에 대체를 이루던 고관절 수술을 '보존'에 초점을 맞춰 최신의 학과 기술을 논의하는 자리로, 국내

외 석학들이 참여해 관심을 모았다. 라이브 서저리(Live Surgery)와 학술 세미나(Lecture)로 진행된 이날 스페셜 강의에서는 일본 후쿠오카 대학의 마사토시 나이트 교수와 가톨릭대 권순용 교수가 각각 '골반주위 절골술'과 '3D 프린터를 이용한 골반 절골술'에 대해 강의했다.

라이브서저리에서는 일본 후쿠오카 대학의 마사토시 나이트 교수가 전북대병원 최승민 교수와 함께 '골반주

위 절골술'을, 광주보훈병원 조흥만 과장과 예수병원 신홍식 과장이 FX 골수강 내 골수정을 이용한 전자부골 절의 치료'를 진행했다.

또한 미국 웨이크포레스트 대학 알 스타프스 교수와 순천성기톨릭병원 정우철 교수가 '고관절경 수술'을, 전북대병원 윤선중 교수와 원광대병원 권석현 교수가 내시경을 이용한 좌골신경 감압술'을 진행했다.

학술세미나에서는 알 스타프스 교수가

'21세기 고관절 보존술 : 고관절 관절경 치료'(미 웨이크포레스트 대학 알 스타프스 교수), '발달성 고관절 이형성증에 있어서 관절경을 이용한 고관절 보존술'(일본 직업환경의학대학 소시 우치다 교수), '대퇴골두 원인대 : 기능과 임상적 중요성'(조선대병원 조승환 교수), '비구골절의 와이어 테크닉'(전남대병원 강경순 교수) 등에 대한 강의를 통한 지견을 논의한다.

전북대병원 정형외과학교실 박명식 교수는 "'이번 최신 지견을 통해 고관절 치료의 최신 흐름과 치료법을 공유하자'고 말했다. /박종주 기자

“도 공무원들 능동적인 행정 수행을”

도의회 행정위, 자치행정국·대외협력국·공보관실 추경 심사

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는 19일 자치행정국, 대외협력국, 공보관실에 대한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심사했다.

양성진 위원장(장수)은 공무원수상 업무과실 등으로 부담되는 법률상 배상책임을 지원하는 행정종합순해배상공제가 편성되는 만큼 도 공무원들이 보다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행정을 수행해 주길 당부했다.

강용구 의원(남원2)은 전자도보 이용이 활발해짐에 따라 도보발행 예산 7,000만원을 줄여 예산 절감을 도모하는 것은 바람직하나, 꼭 필요한 사항은 배정하되, 꼭 필요한 사항은 발행하는 것이 필요하므로 적정 발행부수를 찾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김종철 의원(전주7)은 도정 주요시책 추진 해외연수 경비 증액과 2023 세계잡버리 새만큼 유치는 유치활동 관련 국외여비 추가발생, 홍보물 및

기념품 제작, 간담회 경비 등인데 예산 낭비를 방지하기 위해 홍보 비용을 분명히 할 것을 주문했다.

송성환 의원(전주3)은 올해 8월 대구 한국잡버리 지원이 세계잡버리 유치 위한 밑거름이 되는 사업이라 생각하며, 기대되는 사업효과를 거두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송지용 의원(완주1)은 시·군별 기관·단체의 캠페인 등 공익활동 지원을 위한 자치역량네트워크 강화사업은 사업대상을 보다 구체화하여 추진할 필요가 있으며, 이에 대한 관리를 철저히 할 것을 당부했다.

허남주 의원(비례)은 청사시설관리 운영은 예산과 실제 물가변동분 차이를 감액하는 것인데, 최초 예산과 실제가 3.5%의 차이가 발생했다. 이는 물가변동 예산을 세밀하게 검토하지 못한 것이기 때문에 꼼꼼한 점검이 요청된다고 당부했다. /신광명 기자

전주시보건소, 보건사업 통합 성과 ‘우수기관’ 선정

전주시보건소는 19일 서울 AW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제8회 지자체 보건사업 통합 성과대회'에서 종합 우수기관으로 선정돼 보건복지부 장관 표창을 수상했다.

전주시는 이번 평가에서 금연, 절주,

신체활동, 영양, 비만, 구강보건, 심뇌혈관질환 예방관리, 치매, 재활 등 13개 세부 사업이 속하는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사업의 '통합의 의미'를 명확하게 이해하고 추진한 점이 높은 평가를 받았다. /김영재 기자

전주시민을 위한 무료 특강

한국스피치&리더십 컨설팅과 전북도내 6개대학 평생교육원 스피치과정원우회가 공동으로 전주시민과 도민을 위한 무료 공개 특강을 실시하고자 합니다. 본 행사는 삶의 즐거움과 명랑한 사회를 위하고 시민으로 행복하게 살아가기 위해 인성학 및 부부대화기법 특강으로 실시됩니다.



강사: 주선희

- 원광디지털대학교 교수
- KBS 사회교육원 강사
- 인성학박사 1호
- KBS 아침마당 패널

강의주제: 행복을 부르는 인성



강사: 김양욱

- 한국스피치&리더십 컨설팅 대표
- 전주교육대학교 겸임교수
- 전북대 평생교육원 전담교수
- KBS 아침마당(3회) 출연자

강의주제: 부부대화기법

○일시: 2016. 5. 25(수) 오후 7시 ○장소: 전주시청 강당

○문의전화: 231-6669, 285-6676 (주소: 전주시 완산구 노송광장로 10)

주최: 한국스피치&리더십 컨설팅
도내 6개대학 평생교육원 스피치과정 원우회

“전주매일신문은 항상 도민여러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 063-288-9700

www.jjmaeil.com